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8년 12월 23일 (넷째 주일)

성경본문 : 행24장 1-9절

설교제목 : “바울을 고발하니라”

십계명의 제 9계명은 ‘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은 일차적으로 ‘이웃에 대하여 위증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증언에 대하여 무겁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 증언을 했는데, 그것이 위증으로 밝혀지면 그 위증자가 그 죄를 덮어 써야 했습니다.(신19:18-19) 거짓증거는 엄하게 다스리는 항목이었습니다. 따라서 9계명의 일차적 목적은 ‘이웃 보호’에 있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 때문에 이웃이 해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거짓모함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장로들과 재판에 승소하기 위해서 변호사 더들로로 고용하여, 가이사랴에 내려왔습니다.(1절) 변호사 더들로는 유대의 법과 로마의 법을 두루 섭렵한 뛰어난 언변가였습니다. 이들은 합심하여 바울을 고소하였습니다. 바울은 총독 벨릭스가 주관하는 법정에서 호출되었습니다.(2절) 그리고 먼저, 바울에 대한 더들로의 고소가 시작되었습니다. 더들로의 고소는 총독 벨릭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첨하는 말로 시작합니다.(3-4절) 더들로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벨릭스를 칭송하였습니다. 벨릭스 총독에게 아첨하는 말을 마친 더들로는 본격적으로 바울을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더들로는 바울을 세 가지 죄목으로 고소하였습니다.(5-6절) 먼저, 바울이 전염병과 같은 자여서, 디아스포라의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요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유대전쟁사’**에 보면, 벨릭스는 소요사건에 대하여 매우 엄한 태도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는 소요사건의 주동자와 그 추종자들을 십자가의 형벌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더들로는 바울이 소요의 주동자임을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목은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제목입니다. 얼핏 보면, 종교적인 문제 같지만, 실상은 더들로가 바울을 **반란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했다고 했기 때문에 고소당하여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나사렛 예수의 사상을 계승한 나사렛 당의 우두머리로 유대인을 선동하여 로마에 반역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목은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목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죄는 유대법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더들로는 바울이 로마법이나 유대법의 사형에 저촉되는 중범죄자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들로의 바울에 대한 고발은 모두 거짓증거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더들로는 변호사답게 죄를 거짓으로 꾸며 거짓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거짓증거가,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습니다.(요8:44) 야고보는 말이 경건의 기준 가운데 하나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약1:26)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거짓증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증거란 단지 법정적인 위증만이 아니라, 거짓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해서는 안됩니다. 잘못된 소문을 퍼뜨려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출23:1**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렇다면 왜 거짓된 말을 퍼뜨리지 말고 거짓증거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이 사람과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잠25:18**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거짓말과 거짓증거는 이웃에게 상처주고, 피를 흘리게 하고, 깨어지게 하고, 아픔을 만듭니다. 남을 중상모략하는 것은 남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남을 중상모략하는 것은 혀로 하는 살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거짓모함은 일종의 언어테러입니다. 따라서, **엡4:25**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는 의미는 ‘솔직하게 말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지혜롭게 실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소문이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사람을 죽이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실에 기초한 것인가, 거짓정보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거짓정보에 근거한 소문을 발설하는 것은 나도 공범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른 정보에 기초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피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똑같이 취급하십니다.(시5:6)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시101:5) 따라서 바울을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엡 4:29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이란 ‘부패한 말’, ‘썩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즉 ‘악의를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악의를 가지고 하는 말’이 바로 ‘거짓말’, 헐뜯’, ‘거짓모함’, ‘남에게 상처를 주는 비방하는 말들’입니다. 우리는 거짓모함과 비방을 그쳐야 합니다.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덮어주는 말, 세워주는 말, 사랑의 말, 살리는 생명의 말,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한마디 말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것처럼, 말의 위력은 엄청납니다. 잠18:21에서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고 말합니다. 말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파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시141:3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의 말하는 습관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거짓말도 습관입니다. 작은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말은 결코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살리는 말을 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은 잘못된 말 한마디를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입술을 온전히 구속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살펴보기

- 1) 더들로란 어떤 인물이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들을 고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2) 더들로가 바울을 고발한 세 가지 죄목이 무엇입니까?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말의 위력은 큼니다. 잠18:21에서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고 말합니다. 말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파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